

붓물처럼 터지는 “호남선 KTX 요금 인하”

광주시의회 이어 전남도의회 운임 차별 철회 결의안

전북도의회·3개 시의회도 요금 시정·속도 개선 촉구

유일호 장관 “시간대별 할인을 늘려 부담 완화 검토”

호남고속철도(KTX)의 요금 및 속도 논란을 놓고 호남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운임 차별 철회 및 증편 운행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호남선 KTX 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어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충북 오송으로 변경하면서 늘어난 19km에 대한 운임 미산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경부선 요금보다 높게 책정된 호남고속철도 요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어 “지난 1월7일 한국철도공사가 수립한 ‘KTX 운영계획안’대로 호남고속철도 운행 편수를 주중 52회, 주말 56회로 증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한국철도공사 등에 보낼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익산·정읍 등 3개 시의회 의원들도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책정 요금 시정과 속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익산시의회·정읍시의회 의원단은 이날 익산역 앞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손꼽아 기다려온 고속철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이번 개통을 지켜보는 전북도민의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며 “요금에 상대적으로 비싸고 운행 소요시간도 애초 코레일의 홍보와 달리 더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단은 “오늘 우리가 시승식을 거부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익산역 광장에 모인 것도 이 같은 호남인들의 불만을 정부와 코레일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도 지방의회와 도민들은 호남선의 운행 요금에 경부선보다 비싼 이유와 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역시 호남 분기역 선정 당시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호남인과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호남선 열차가 원안대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운행 계획도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경부선보다 10년 늦게 개통한 호남선 승객들에 대한 예의이자 호남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호남고속철에 대한 기대감이 ‘호남 홀대론’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와 코레일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간대별 할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호남선 KTX 이용객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005년 오송역으로의 분기역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늘어난 19km 구간에 대한 요금할인을 당시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만큼 요금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9일 광주승정역을 출발한 호남선 KTX가 출발한 지 15분 만에 최고속도인 300km로 내달리는 가운데 코레일 광주본부 직원들이 KTX 요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말엔 KTX타고 남도여행 떠나요”

광주·전남 ‘아트투어 남행열차’ 운행

광주와 전남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가 공동 참여하는 남도 관광객 유치 상품이 개발·운영된다.

19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선KTX 개통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일요일 ‘아트투어 남행열차’를 운행한다.

KTX 56석짜리 1량을 임대해 뒤 송정역→양림동역사문화마을→대인아시장→소쇄원→죽녹원 등을 거치는 당일관광, 1박2일 등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전당을 거점으로 하는 도심관광 트레일코스도 개발돼 연중 운영된다. ▲문화전당→동명동 카페촌→푸른길→광주천→사직공원→충장로를 잇는 추억과 낭만코스 ▲문화전당→광주풀리→대인예술시장→예술의 거리를 연결하는 문화예술의 멋 코스 ▲문화전당→정음성생가→이장우가족→수피야고→유일선 선교사 사택→사직공원 전망타워의 근대역사 코스 등 3개 코스다.

한편 광주와 전남도는 오는 23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도방문의 해 업무협약 및 선포식을 개최하고, 5월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한류팬 사인회 등 대대적인 홍보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전북 양식 기술 배우러 왔어요”

노르웨이 고교 교사들, 완도 양식장 견학

수산과학원 소개로 완도 현장서 연수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고등학교 교장, 교사 등 10명이 해조류와 전북 양식의 본산인 완도를 찾았다. 이들의 관심사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산업 및 음식, 전복 등의 양식 기술. 거기에 조만간 자매결연을 맺은 완도수산고등학교에서 연수를 받게 될 학생들을 위해 여건을 살펴보는 것도 포함됐다.

노르웨이 프리아 고등학교와 히트르 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 비오트랄 회사 CEO 등 관계자 10명은 19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을 찾아 해조류·전복 양식 현황, 신상품 개발 동향, 연구 시설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프리아 고등학교는 미래 수산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 학교로 지난해 5월6일 수산계 마이스터고인 완도수고와 글로벌 현장학습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올해 1월9일부터 2월7일까지 완도수고생 20명이 노르웨이 프리아 고등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했으며 상호협력 일환으로 최근 방문한 것이다.

프리아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년에 연수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이밖에 완도군에 있는 전북연구소와 해조류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전남 수산업, 연구소 기능, 해조류·전복양식 현황, 중점 연구 추진전략 등 연구 동향을 듣고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노르웨이 방문단을 안내하고 있는 완도수산고 김교은(여·33) 교사는 “노르웨이에서는 해조류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프리아 고교 등이 해조류의 미래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높이 판단해 완도수고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안다”며 “완도의 해조류가 유럽에 알려지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측은 전남도내 수산계 고등학교와 협력해 자매결연한 해외 수산학교 간 상호 방문 교류를 확대, 청소년 현장학습 해외 진출, 선진 양식기술과 운영시스템 도입, 정보 교환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호남선 KTX 요금·시간 불만 ‘어물쩍’ 넘기려는 코레일

광주본부, 19km 오송 우회 요금 속 빼고 “경부선과 동일 적용” 해명

호남고속철도 현안사항 설명회와 시승식이 열린 19일 오전 11시32분 광주승정역을 출발한 KTX에선 최근 논란이 불거진 호남선 요금과 소요시간에 대한 코레일 광주본부 직원들의 해명이 이어졌다.

시승객이 “경부선에 비해 호남선의 요금이 비싼 것 아니냐”고 묻자, 코레일 광주본부 함성훈 영업처장은 “고속선 비율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 것일 뿐 호남선이나 경부선이나 정부가 고시한 고속선과 기준선 가격은 지역간 차등 없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고속선과 기준선의 요금 상한선은 km당 각각 163.31원·103.66원원으로, 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호남선의 고속선·일반선이 각각 279.1km·24.7km로, 서울~동대구 구간이 223.6km·69.5km 보다 고속선의 비율은 높은 반면 기준선은 낮아 요금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병직 전 장관이 지난 2005년 호남선 KTX 분기역을 충남 천안에서 충북 오송으로 바꾸면서 늘어난 19km 구간에 대한 우회구

간 요금을 받지 않겠다던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운영 소요시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상·하행선 열차는 모두 48편으로, 소요시간은 93분~122분이며 평균 시간은 107분이다. 시민들은 애초 KTX 전편이 93분 만에 광주~용산 구간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상하행선 2편만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함 처장은 “외국에서도 열차 소요시간을 얘기하면서 최단시간을 얘기하지, 최장시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게 관례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소문 부재에 따른 소요시간 혼용 논

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간 코레일은 소요시간과 관련된 구간 정차역이 정해진 뒤에도 광주~용산을 오가는 KTX 전편이 93분 만에 주파하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KTX 최장 소요시간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

다음달 2일 개통될 KTX는 출발·종착역인 광주승정역과 용산역을 제외한 광명(41회)·천안 아산(28회)·오송(30회)·공주(27회)·익산(48회)·정읍역(32회) 등 6개역에서 정차한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승정역과 충북 오송을 오가는 KTX 안에서 열차운행·운임 관련 등에 대한 정당성을 시종일관 피력했다. 하지만 호남선 KTX가 경부선보다 더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보훈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디스커버리 '황 김사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올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우승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4412번 810 68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